

조경수목산책 36

- 비자나무(II) -



임 경 빈
농학박사

일본명칭, 가야, 우리말인가

일본에서는 비자나무를 「가야」라는 명칭으로 부르는데 가야란 「문견(蚊遣)」을 일본말로 음독한 것인데 모기를 쫓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추리가 있다. 화한삼재도회에 「불태워서 모기를 쫓을 수 있다. 모기는 그 냄새를 싫어한다. 그러나

지내는 그 냄새를 좋아해서 모여든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비자나무를 태워서 모기를 쫓는 풍습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명 가야로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일본의 후까쓰(深津)란 사람은 비자나무의 어원에 대해서 흥미있는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그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전남 백양사의 비자나무숲. 1993. 7. 3

좀 간추려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풀이를 해본다.

일본에 있어서 먼 지난날 비자나무를 “가배(加倍)”라 했고 개비자나무는 “가폐(加閉)”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비자나무의 종자(흔한 말로 열매, 생물학적으로는 종자이지만)를 “폐미(閉美)”라 했다. 이때 폐미란 가폐(加閉)의 열매라는 뜻이다.

그 나라에서는 고래부터 등유(燈油)로서 중요하였던 것은 개비자기름(閉美油)였다. 그런데 개비자나무의 조선말 명칭(한국말 명칭)이 개비(kai-pi)(狗櫃)였는데 예전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개비”라는 말을 일본에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비가 일본말 가애로 전음(轉音)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비자나무와 개비자나무는 모양과 생태가 서로 매우 닮아있는 서로 같은 무리의 나무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래서 원래 개비자나무에 적용되었던 명칭 “가애”가 비자나무에 대하여서도 그래도 옮겨가서 쓰여졌다는 사고(思考)이다.

그 뒤 문자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되자 개비자나무와 비자나무를 구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개비자나무를 가폐(加閉)로 비자나무를 가배(加倍)로 했다는 것이다.

“개비”라는 우리말이 가애로 되고 가애는 다시 가야로 되었다는 것인데 이때 개비자는 뒤로 물러나고 비자나무에 이 명칭이 독점되면서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말 명칭이 바탕이 되어서 일본어 명칭이 얻어졌



▲비자나무 백양사. 1973. 7

다는 내용이다.

개비(자)→가애→가야(비자나무)

특히 불교가 전파된 뒤 식용, 약용, 등유 등 비자기름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목재의 유용성, 나무의 조경적 아름다움 등의 장점을 모아서 생각한다면 원래 개비자에서 출발한 어원인 “가야”가 비자나무 쪽으로 기울어져가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기를 쫓는다는 어원은 취할 바가 못되는 속설이라는 것이다.

우리말의 문화가 일본말의 문화에 끼친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비자나무에 대해서 전반적 해설을 깊이 있게 다룬 학자 우에끼(塙木)교수가 있다. 그는 1926년 임업시험장 보고 제4호에 송백류를 다루면서 비자나무를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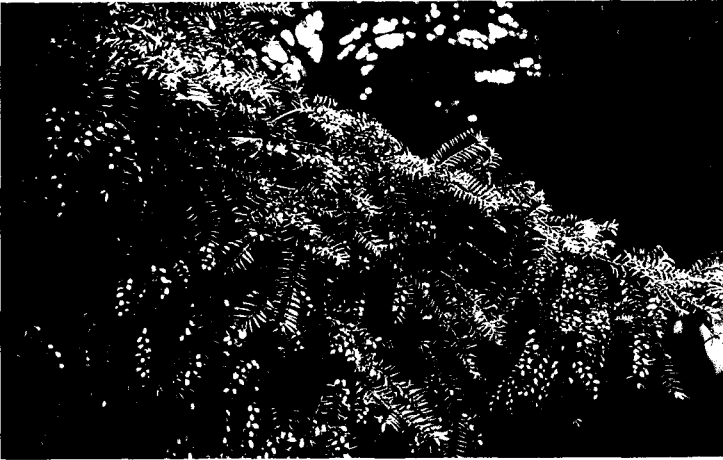
그 중 분포에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자나무는 서어나무류, 참나무류, 합다리나무 등과 혼생하고 하목(下木) 또는 지배목(支配木)으로 되나 진정 비자나무가 조선에 야생하느냐에 대하여서는 아직 의문이 있다. 이 나무가 상록수이고 식용유를 생산함으로써 옛적부터 사찰주변에 식재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순림도 지난날 식재된 것이라는 설(說)이 있다.

조선산 비자나무에 큰 나무는 전라남도에만 나고 그 수가 극히 희소하다. 그 중 큰 것으로 알려진 것은 흉고직경 2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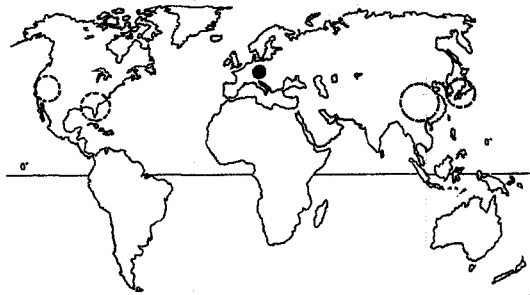
수고 112m로서 수령 400년이 고, 강진군에 있다. 수고를 볼 때 일본의 그것과 손색이 있고 수령에 있어서도 일본 것이 훨씬 더 오래라고 했다. 이처럼 한국산의 비자나무가 수고에

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의 일본인 학자들도 우에끼 교수의 이러한 진술을 따라 서인지 우리 나라 비자나무의 야생설을 단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난온대지방에 분포하고 식재한 것은 순림(純林)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으나 자생하는 것은 습하고 땅이 깊은 계곡지대에 단목(單木)적으로 나 있고 모여서 난다하더라도 그 집단의 크기는 매우 작다고 한다. 그래서 비자나무의 야생을 말하는 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동떨어져서 외로이 서 있다면 그것은 야생이 아니고 심어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을 일단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남쪽에 서 있는 비자나무도 단목적인 것이 많다. 그러나 집단을 이룬 것도 몇 곳 있어서 야생 또는 비야생을 다루는 것은 현재로서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고흥금암사의 비자나무 꽃 천연기념물 239호. 1998. 4. 23.
▶(그림1) 비자나무속의 자생분포지역(현재) 혹은 화석으로 발견된 곳



세계적으로 볼 때 현재 지구 상에는 학자에 따라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으나 7종(種) 그리고 1품종, 4변종 및 4재배종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 학자가 있다. 모두 북반구의 난온대 지대에 있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지방과 플로리다지방이 분포역으로서 서로 멀리 격리되어 있는 것이 흥미의 과제로 된다. 유럽에서는 헝가리에 화석으로 출토되어 있고 현존 분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양에 있어서는 중국에 하나의 분포중심이 있고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남부와 일본에 걸친 분포지역이 있다.

있어서 뒤떨어지는 것은 본 줄기가 갈라져서 수관이 수평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하고(枝下高)가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의 서술로 보아 우에끼 교수는 비자나무의 야생설을 단정하고는 있지 않으나 그것을 부정하는 대목도 없고 망설이

비자나무 연구학자는 제주도의 야생은 인정하고 본토의 것은 야생이 아닐 것이라는 설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이곳 분포도에 보이듯이 비자나무(*Torreyana nucifera*, 토래야 누키페라)는 한일지역을 분포 중심으로 하는 독립된 한 종으로 보고 있다.

비자나무는 일본에 있어서도

비자나무는 고대식물의 하나로 볼 수 있고 학자에 따라서

는 대만에 일종이 있다하고 일본에서는 더 많은 변종 등을 들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자나무는 개체수로 보나 또 집단 크기와 수로 보아 희소성을 지닌 것 같다. 이것은 비자나무의 쓸모 때문에 지난날 사람들의 집중적 이용으로 말미암아 줄어든 것일지도 모른다.

(1) 제주도 구좌면의 비자림

일찍이(1926) 우에끼 교수는 제주도 구좌면의 비자림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다. 즉 「제주도에 있어서는 한라산 동북쪽 산기슭 쪽에 면적 38헥타 나무수 약 5천 그루의 비자나무 숲이 있다. 조선조시대 종실을 채집해서 궁중에 헌납하고 목사(牧使)가 전적으로 이것을 관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임상이 크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 울릉도에는 비자나무가 없다. 그리고 대만에도 없다. 비자나무속에는 세계적으로 5종이 있다.」

이러한 서술로서 학자간의 다른 견해가 인정된다. 일본의 훗때(堀田)는 최근(1996)에 비자나무속에는 미국에 2종, 중국에 1종, 대만에 1종이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우에끼 교수의 제주도 비자림의 1926년대의 규모의 기록에 관심을 쏟게 된다.

필자가 제주도 비자림을 찾

은 것은 여러 번이다. 1992년 5월 7일에 비자림을 찾았을 때에는 비자림에 4.5km의 석축이 있었고, 이것은 1991년에 완공한 것인데 의도는 비자나무를 보호하고자 한데 있었다. 이것

들어져 있었다. 비자림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듣건대 가까운 곳에 성불악(成佛岳) (일명 陰山)이 있고 성불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비자나무는 절터부근에 흔히 나



▲제주구좌면 비자나무 숲. 1999. 10. 3.
◀고흥금탑사의 비자나무 숲. 천연기념물 239호 1998. 4. 23

은 산불의 연소를 막는다는 뜻도 있어서 일종의 보호벽이라고 해석된다. 숲 안에는 교육관 찰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인간의 비자림에 대한 강한 압박을 느낄 수 있었다. 최선의 보호와 관리를 한다해도 비자림에 대해서 좋을 리는 없다.

그 뒤 1999년 10월 3일 비자림을 찾았다. 좋은 관찰로가 만

타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무언가 그러한 냄새도 맡아본다.

비자림 안내판이 있었는데 이 숲은 천연기념물 제374호로서 면적은 448,165㎡에 500~800년생의 비자나무가 약 2270그루 자라고 있다고 했으며 수고는 7~14m, 흉고직경은 50~140cm이고, 수관폭은 10~15m로 되어있다. 1926년도의 5천

그루에 비하면 그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나무마다 고유번호를 붙인 명찰이 붙어 있었고 차대(次代) 어린 나무가 나타나서 세대의 이음이 되게끔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보였다. 그것은 큰 나무 사이에 공극지가 있으면 어린 나무를 보충 식재해 준 것을 살필 수 있었다. 가령 고

유번호 1779호의 경우는 흉고 직경이 8~10cm 쯤으로 수고는 5~6m 쯤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어린 나무는 그곳 노숙한 비자림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았다.

또 고유번호 0015호는 흉고 직경 15cm, 수고 6m의 어린 나무인데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고 후계자로 될 것을 꿈꾸고

있는 듯했다. 큰 비자나무에는 나도풍란, 풍란, 흑난초, 콩짜개란, 비자란 등 난과식물이 이곳에 함께 자라고 있었다.

이곳처럼 굵은 비자나무가 넓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귀중한 것이다.

우에게 교수는 비자나무 종자기름은 요리용 약용 등용(燈用)으로 쓰이고 제주도산 비자 1되(1升)에서 0.07승, 즉 7%의 기름을 얻었다 했고 기름색깔은 황갈색이고 매운 맛이 강하고 성질은 건성으로서 도료용으로 쓰이며 등화용으로는 불빛이 다른 어느 기름보다 뛰어나다고 했다. 그리고 강한 추위에 있어서도 응결하는 일이 없어 귀중한 것이라 했다. 중국의 문헌에 의하면 종자 배유의 함유량(含油量)은 40%라 했고 역시 식용, 약용으로 이용한다고 했다. 가종피(假種皮)와 앞에는 방향유(芳香油)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조경수로서의 가치도 크다고 했다.

(2) 고흥 금탑사의 비자나무 숲

3년 전에 나는 이곳 비자나무 숲을 찾았다. 천연기념물 제 239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면적은 97,181㎡라는 넓은 공간에 많은 비자나무가 서 있다. 이 숲의 소유자는 금탑사로서 금탑사의 경내에 해당한다. 천등산 중턱에 자리잡



▲비자나무숲 최대목. 제주구좌. 1992. 11. 15

은 금탑사 돌레에 있는데 절 창건 이후에 심어진 숲으로 알려져 있다. 금탑사는 신라 선덕여왕 6년(637)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이고 그 뒤 몇 차례 중건하였다.

비자나무는 사찰 앞부터 사찰 뒤로 이어져 있으며 높이 약 10m이고 가장 큰 것의 가슴높이 줄기지름은 50cm쯤 된다. 나무들의 나이가 서로 비슷하고 숲이 울밀하기 때문에 하부식생이 거의 자리지 못하고 있다.

금탑사에 부속되어 있는 암자 주변에도 심어져있다. 그래서 비자나무의 야생설이 근거를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과거 절간에서는 많은 양의 등유가 필요했을 것이고 식용유의 가치도 컸을 것이다.

(3) 백양사의 비자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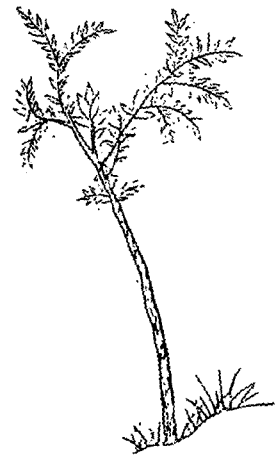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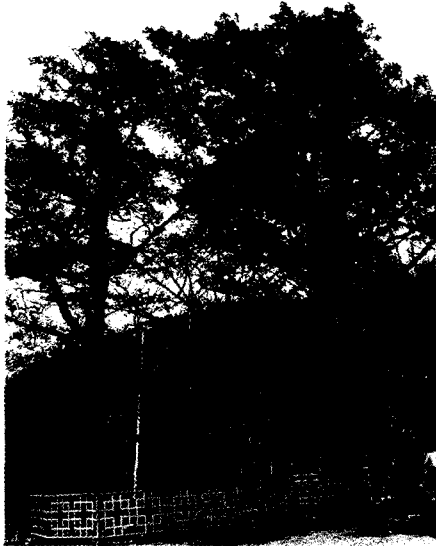
백양사의 비자나무 숲은 이 수종의 분포로 보아 북한(北限)이 되므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백양사보다 더 북쪽까지 분포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백양사에 근접한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사는 백양사보다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내장사 근처에도 비자나무의 노거목이 여러 그루 있다.

백양사의 비자나무는 고려 고종 때 각진국사(覺眞國師)가 심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약 5천 그루가 자라고 있다. 백양사의 비자나무숲은 천연기념물 제153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학술연구자 원으로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내장산의 비자나무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생육공간 분포상으로 북한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비자나무는 따뜻한 곳을 골라서 자라는 나무이다.



▲〈그림2〉 비자나무(삼재도회)
 ▼전북 내장사의 비자나무 1988. 9

중국비자나무의 학명은 「토래야 그란디스(Torreya grandis)」이고 그들의 비수(榲樹) 또는 향비(香榲), 야삼(野杉) 등으로 말한다. 대교목으로 자란다.

중국비자나무의 분포구역은 이미 이곳에 지도로서 나타내었다. 그런데 중국의 문헌 삼재

도회(三才圖會)에는 비자나무(榲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자는 산계곡에 나고(榲子生山谷) 그리고(及) 민절(閩浙)에 많다(多有). 그 앞은 봉황새의 꼬리에 닮았고(之葉似鳳尾) 그리고(而) 열매(子, 종자)는 줄기에 난다(生莖). 열매의 속 맛은 달고 따뜻하고(中

味甘溫), 독이 없고(無毒), 먹으면 폐에 좋다(食之益肺)라고 쓰여지고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주된 생육지 민절이란 곳인데 민절은 양자강하류에 따른 따뜻한 지역이다. 그래서 옛적부터 중국에 있어서 비자나무의 분포중심지 같은 것을 상고해 볼 수 있다. **조경수**